

용성조사 열반일 기념식

불사리 3층 석탑 조성 천일기도 입재식도

장수군 번암면 죽림정사에서는 9일 1919년 3.1독립만세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분인 백용성스님의 입멸 78주기 기념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안동환 부군수, 유기홍 군의장과 군의원 등을 비롯해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및 신도, 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토회 주관으로 열렸다. 또한 다례제와 삼귀의를 시작으로 용성진종 조사행장 낭독, 사리탑조성 33개월 천일기도 발원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용성조사 열반일을 기념하여 독립정신과 불교중흥의 의지를 바로 알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기 위한 불사리 3층 석탑 조성 천일기도 입재식이 함께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조국 광복과 민족 독립을 중생구제의 일환으로 여겼던 용성조사는 상하이임시정부로 자금을 보내는 등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하며 호국불교 신념을 실천했다.

용성스님은 1864년 번암면 죽림마을에서 출생, 14세에 남원 덕림암으로 출가, 해인사 화월스님을 은사로 해조율사를 계사로 정식출가, 1919년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 한사람으로 한용운과 함께 불교계를 대표해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다.

이 때문에 1년6개월간 옥고를 치



장수군 번암면 죽림정사에서는 1919년 3.1독립만세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분인 백용성스님의 입멸 78주기 기념식을 봉행했다.

른 이후에도 독립운동에 참여했으며 빼앗긴 말과 글을 찾고 불경을 대중화하기 위해 불교경전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도 했다.

용성스님은 선농일치의 불교운동을 전개했으며 불교잡지 '불일'을 발행하고 여러지역에 포교당과 선원을 개설해 수시로 선회를 열어 불교대중화를 통한 민족 계몽운동에서 힘썼다.

법륜 죽림정사 주지스님은 "앞으로 죽림정사는 민족중흥과 불교중흥을 위해 한 평생을 살다 가신 용성조사의 유지를 받들어 불법을 올바르게 전하고 민족통일과 민족정기를 바로세우는 민족사의 성지로 남기 바란다."고 말했다.

죽림정사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 민족과 함께했던 용성스님의 정신을 종교를 떠나 민족정신으로 승화하기 위하여 내년 3.1절에는 불교, 천도교, 기독교 등 3종교가 함께 서울에서 대대적인 3.1운동 기념행사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성스님의 모든 저서와 자료를 망라하는 업적을 PC와 모바일에서 인터넷 검색 하나로 확인할 수 있고 전자책으로도 발간하는 디지털 작업이 5년만에 완료됐다. 따라서 지난 4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사(재)조계종대각회(이사장 해홍)주관으로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개된 바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북투어패스카드 1+1구매 이벤트 벌여

진안군-도, 마이산 관광객 대상 홍보도... 2200장 판매

진안군은 9일 전북투어패스카드 인지도 확산 및 홍보를 하기 위해 전북투어패스카드 자유이용가맹점과 특별할인가맹점에 대한 다양한 이용방법을 제공함과 함께 투어패스카드 홍보 및 온·오프라인 1+1구매 이벤트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일 전라북도과 진안군이 함께 추진한 행사로 진안마이산을 찾는 관광객을 상대로 전북투어패스카드의 구입방법 및 이용방법 등을 홍보하는 마케팅의 장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1+1구매 이벤트를 추진하여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전북투어패스카드 2,200장을 판매하였고 투어패스 이용률 확산을

위하여 군은 작은영화관, 가위박물관, 명인명품관, 진안고원치유의숲 등 진안군 자유이용가맹점과 특별할인가맹점에 대한 다양한 이용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어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주말을 맞이하여 투어패스카드 홍보 및 이용을 통한 대표관광지로서 진안군과 마이산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진안 브랜드 인지도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진안 마이산이 전북관광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아리

13일 '태권도 명인제 도입' 토론회

'태권도진흥재단(TPF, 이사장 이상욱)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올림픽파크텔(서울홀)에서 태권도 명인제 도입에 대한 타당성 등의 연구와 그동안 전문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태권도진흥재단 및 이 연구를 수행한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각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태권도 명인제 도입 방향을 올 상반기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애인 '술에서 배우다Ⅳ' 운영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김진)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장애인의 오감힐링을 위한 숲속치방 '술에서 배우다Ⅳ'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연속 선정되어 이달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성인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아동·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숲체험교육은 장수군 노하리 노하숲에서 장애인 및 장애아동·청소년 가족 60여명에게 자연생태관찰 및 자연친화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적·정서적 건강증진, 장애인 가족의 스트레스 해소 및 가족간 유대감과 가족응집력이 향상 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무주군 일반음식점 기준영업자 위생교육이 9일 무주예천문화관에서 열렸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교육원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황정수 군수와 외식업중앙회 전북교육원 김태정 원장, 무주군 외식업지부 서병국 지부장을 비롯한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무주읍 안옥선 씨(58)와 살천면 최형애 씨(44), 전영자 씨(58)가 안전한 녹색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군수 표창을 받았다.

황 군수는 "소중한 먹거리에 건강과 신뢰를 불어넣는 자리가 마련돼 기쁘다."며 "여러분 스스로가 관광 무주를 지향하는 우리 군의 보배라는 생각으로 먹거리에 맛과 위생을 더하고 친절을 베푸는 일에 마음 쏟아달라"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외식업중앙회 김태정 전북교육원장이 직접 진행하는 식중독 예방과 친절서비스 교육을 받고 식품위생법 해설을 들으며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군은 일반음식점 위생등급 평가를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 교육과 캠페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황인홍 무주군수 예비후보 출마선언

"살맛나고 활력 넘치는 무주, 반드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맛나고 활력 넘치는 무주, 반드시 만들어 놓겠습니다"



황인홍 무주군수 예비후보(64·무소속·사진)가 9일 무주군청 브리핑룸에서 출마를 공식화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포퓰리 행보를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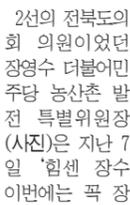
황 예비후보는 "무주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해 군민들에게 행복을 안기고, 청정 무주를 향한 군민이 주체가 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군수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

다."고 말했다. 공약으로는 △1000만 방문객 시대 개막 △선택과 집중으로 경쟁력 있는 차별화정책 실현 △균형개발 정책으로 더불어 잘사는 군민 행복추구 등 3대 희망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이 낙후돼 있는 안타까운 실정을 짚어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주민 참여 자치역량 강화 △농산물 유통시스템 구축 △관광클러스터 완비 △무주군민 비즈니스센터 운영 △여성·노인·장애인 전용타운제공 및 복합스포츠센터 운영 등을 세부공약으로 내놓으며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영수 장수군수 예비후보 출마선언

"경험 갖추고 인맥 탄탄한 젊고 능력 있는 일꾼 필요"



2선의 전북도의회 의원이었던 장영수 더불어민주당 주당 농산촌 발전 특별위원장(사진)은 지난 7일 '힘센 장수 이번에는 꼭 장영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장수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장 후보는 이날 장수군청 기자회견을 찾아 "지난 지방선거에서 36%가 넘는 전폭적인 지지에도 저의 부족함으로

분투를 삼켜야 했다."면서 "군민의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는 일은 장수군민을 위한 헌신봉사에 없다고 생각해 출마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지금 장수가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험 갖추고 인맥 탄탄한 젊고 능력 있는 일꾼이 필요하다."면서 "행복장수, 건강장수, 교육장수, 부자장수를 위해 꼭 장영수의 손을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약속 잘 지키는 군수, 군민 위한 군민의 군수, 깨끗하고 공정한 군민 모두의 군수, 돈 넘쳐나는 세일즈 군수, 군민 섬기는 효자군수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여성친화형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올해 국·도비 포함 3억원 투입... 콩 탈곡기 등 7종 61대 구입·임대 계획

무주군이 여성친화형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녀회가 가속화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군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올해 3억 원을 들여 관리기와 운반차, 콩 탈곡기, 휴대용 전동가위, 보행형 퇴비살포기 등 7종 61대의 농기계를 구입·임대할 계획이다.

여성친화형농기계 임대를 원하는 여성농업인은 군 농기계임대사업소(농업기술센터 본소, 무풍본소, 안성본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에 따르면 농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여성친화형 농기계는 12종 99대로, 올해는 잔가지 파쇄기 등 노후된 농기계 2종 10대를 교체하고 4조식 승용이앙기 등 7종 26대를 새로 구입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김충성 소장은 "우리군 여성농업인은 4,439명으로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 농기계의 25%를 여성들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해 만들었거나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농기계로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전국 단위 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

되기도 했던 무주군은 '여성친화형농기계 임대사업' 외에도 '365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업인 편의 농작업 대행사업',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 '맞춤형 주말반(금·토) 농기계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3,256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9,600여만 원의 임대수익을, 또 489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해 1억 5,2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다.

농업인들은 "농기계를 언제든지 빌려 쓸 수 있고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까지 보충된다고 하니 기대된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테 홍

서바이벌

레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ATV / 버기카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 485-2)

대표 약력

일본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베르티 지역 휘트니스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국제대회 디수 참가 및 우승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동계U대회 국가대표 출전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국가대표 코치 역임	연)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1/NSL2) 휘트니스	